

# 제57회 호남예술제 부문별 최고상



**종합상**

<최고상>  
광주송원초등학교  
광주동아여자중학교  
광주예술고등학교  
<우수상>  
살레시오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단체 최고상**

중창 중등부=꿈을 품은 메아리 중창단  
중주 중등부=바이올린 뮤지스쿨  
발레(장작군무)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현대무용(군무) 고등부=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국악(기악,타악단체)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합창 초등부=남평초등학교  
관현악합주 초등부=광주송원초등학교  
관악합주 초등부=연계초등학교

**시**

<p>&lt;초등부&gt;</p> <p style="text-align: center;"><b>미역국</b></p> <p style="text-align: center;">김남현 &lt;광주송원초4&gt;</p> <p>시름 보는 날 미역국 먹는 거 아니라 해 놓고 중간고사 보는 날 아침 따뜻한 미역국 식탁위에서 깊이 모락 모락</p> <p>꿈 속까지 찾아와 공부하라 괴롭게 놓고 미역국 끓여주는 엄마의 마음. 사랑일까? 심술일까?</p> <p>집중해야 정신차려라 노래 불러놓고 싱크대에 버려버린 엄마의 정신.</p> <p>시름 결과 안중으면 엄마 미역국 탓이야. 할말이 생겼네.</p>	<p>&lt;고등부&gt;</p> <p style="text-align: center;"><b>고로쇠 수액</b></p> <p style="text-align: center;">심현지 &lt;문정여고3&gt;</p> <p>나는 지금 플라스틱 물통에 담긴 고로쇠수액을 작은 병에 옮기고 있습니다.</p> <p>천공작업을 마친 하늘 뭇별들이 잠았던 눈물처럼 쏟아져 나올 때면 아버지는 나무껍질처럼 거친 손등으로 고로쇠나무 등걸을 매만진 듯 했습니다.</p> <p>호스를 타고 흐르는 은하수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다던 아버지 말라 가물거리는 어린 시절에선 보름달 동동 떠다니던 냇물소리 들린다고 내 열일곱 낱속에 흘러넣어주곤 했습니다.</p> <p>아버지도 없이 이 늙은 나무 제 속에 고인 맑은 소리를 또 깨워냅니다. 병에 아워어 가면서도 투박한 손길로 우릴 길러낸 아버지 옆구리에 호스를 박은 채 고로쇠나무 한 그루 왜버린 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p> <p>나는 이제 알 것도 같습니다. 고로쇠나무 아워어 가는 동안 내 청춘의 가지는 더 무성해진 것 아버지의 은하가 몸속에 흐른다는 것</p> <p>아버지 너른 손바닥처럼 나뭇잎들 내게 안면을 묻고 지나갑니다. 또옥뚝 뚝 안으로 떨어지는 고로쇠 물소리 오늘 참 맑습니다.</p>
--	---

## 미술



가족여행 초등부1·2년 이예원 <고실초1>



내가 꿈꾸는 세상 중등부 정윤미 <살레시오여중3>



우리 동네 봄 중등부 김민혁 <장덕중1>



가족여행 초등부3·4년 조은승 <광주송원초3>



가족여행 초등부5·6년 김민정 <용두초5>



우리 동네 봄 고등부 이인혜 <광주예고1>

**산문**

<고등부>

**내 마음의 뿌리**

차나연 <상일여고3>

커다란 삼을 마당에 푹 쪄라 놓았다.  
잔디가 살짝 들린 밭으로 까만 흙더미가 보였다.  
손잡이에 무게를 실어 위로 퍼 올리는 시늉을 했다. 관자놀이엔 맺힌 땀이 빗물과 섞여 광대 아래로 흘러내렸다. 나는 기계처럼 삼을 움직였다. 하늘이 더욱 어둡해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물이 녹진하게 몸을 적셨다.  
중심에 서있는 소나무 묘목을 중심으로 반달 모양의 구멍이가 생겼다. 굵직한 소나무 기둥 밑에 뿌리가 방사형으로 퍼져 있었다. 한참 삼질을 했지만 뿌리가 많고 굵은 탓에 나무를 뽑을 수 없었다. 나는 삼의 코를 땅에 대고 숨을 골랐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할 때마다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기 중으로 고고히 퍼지던 흙먼지가 빗물에 매여 가라앉았다. 나는 소나무를 바라봤다. 묘목의 기둥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걸려있었다. 이전 이년 이십 육일 토요일. 동생의 탄생을 기념하며 심은 나무였다.  
십년 전, 어렸던 나는 아빠와 함께 그 묘목을 심었다. 아빠가 화분삼으로 작은 구멍이를 파자, 나는 자기마한 손으로 묘목의 뿌리를 구멍이에 맞춰 심고 흙을 덮었다. 그동안 엄마는 마

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품에는 겨우 눈을 뜬 동생이 엄마의 젖을 쪽쪽 빨고 있었다. 행한 마당 한 가운데 심은 소나무처럼, 동생은 우리 가족을 가득 채워 주는 존재였다. 동생의 모든 '처음'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왔다. 동생은 그 마당 위에서 걸음마를 떼고 첫 말을 뱉고 무릎을 다쳐도 봤다. 소나무가 크는 만큼 동생도 자랐다. 우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겼다.  
호주머니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엄마였다. 바닷가에 동생의 뺨가루를 모두 뿌렸다고 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축축히 젖어 있었다. 교통사고로 동생이 죽은 지 일주일일이었다. 아직도 동생이 없다는 실감은 나지 않았지만 진한 슬픔만은 확실하게 느껴졌다.  
흙 밖으로 드러난 하얀 뿌리는 굵고 질겼다. 마치 통통하고 하얀 동생의 팔 같았다. 나는 구멍이 속으로 손을 뻗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얽고 기다란 손톱에 흙이 찼다. 물에 부딪혀 부러지고 피가 나기도 했다. 그건 보드랍고 따뜻한 동생의 팔이 아니었다. 뜨거운 눈물이 똑똑 떨어졌다. 아무리 깊게 파내도 뿌리의 끝을 찾을 수 없었다.  
겨우 십년. 겨우 십년인데 왜 이렇게 파낼 수가 없는 거야. 나는 울며 소리쳤다.  
하늘에서는 빗물이 계속 떨어졌다. 나는 진흙 범벅이 된 손으로 소나무의 기둥을 붙잡고 크게 흐느꼈다. 빗소리에 겨우 내 울음은 들리지 않았다.